

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

미 증시, 개별 기업 이슈 및 반발 매수로 상승

2021.8.23

서상영 sangyoung.seo@miraeeasset.com

미 증시 동향

- 미 증시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이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확산, 그리고 기술 부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에 보험권 출발
- 그러나 옵션 만기일을 맞아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자 상승폭 확대. 특히 개별 기술주에 대한 우호적인 이슈가 상승 주요 요인
- 다우 +0.65%, 나스닥 +1.19%, S&P500 +0.81%, 러셀2000 +1.6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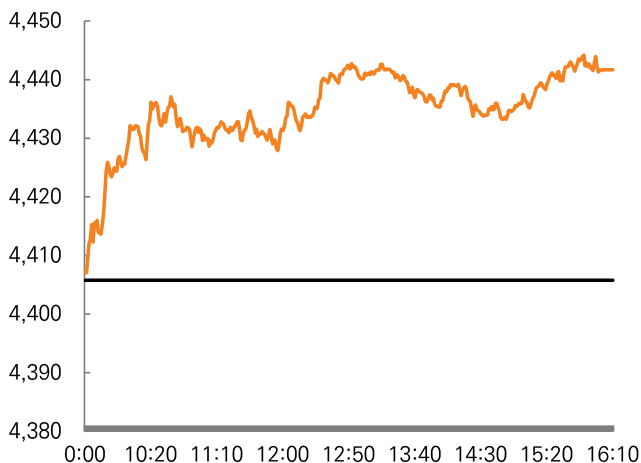
특이 종목

- MS(+2.56%)는 Office 365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개선을 이유로 목표주가 상향 조정되자 상승. 어도비(+1.52%) 등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이틀 연속 상승
- 엔비디아(+5.14%)는 Benchmark가 매수 의견에 230달러 목표 주가를 발표하자 상승.
- 메이시스(+3.61%)가 전일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발표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자 타겟(+3.26%), 콜스(+2.89%), 갭(+3.10%)등 소매 업체도 이틀 연속 강세
- 테슬라(+1.01%)는 AI Day를 통해 로봇 산업 진출 등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상승

한국 증시 전망

- MSCI 한국 지수 ETF는 0.46% MSCI 신흥 지수 ETF는 0.08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,175.91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/원 환율은 5원 하락 출발 예상. Eurex KOSPI200 선물은 0.51% 상승. KOSPI는 0.5%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- 미 증시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 반등 기대 심리를 높임. 더 나아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.64%, 러셀2000지수가 1.65% 상승 했고, 국채 금리 상승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된 점도 긍정적인 요인
- 물론 여전히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, 주 후반에 있을 잭슨홀 컨퍼런스에 대한 우려와 기대 심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상승폭은 제한된 가운데 개별 기업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

S&P500 일중 차트


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

Global Indices

지수등락률	Close	D-1(%)	지수등락률	Close	D-1(%)
KOSPI	3,060.51	-1.20	홍콩항생	24,849.72	-1.84
KOSDAQ	967.90	-2.35	영국	7,087.90	+0.41
DOW	35,120.08	+0.65	독일	15,808.04	+0.27
NASDAQ	14,714.66	+1.19	프랑스	6,626.11	+0.31
S&P 500	4,441.67	+0.81	스페인	8,915.30	+0.15
상하이종합	3,427.33	-1.10	그리스	883.11	+0.13
일본	27,013.25	-0.98	이탈리아	25,918.27	-0.04
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

 변화 요인

개별 기업 이슈

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이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부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 투자심리는 위축되는 경향을 보임. 여기에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시사 및 중국 정부의 유동성 축소 지속 등도 부담으로 작용. 그렇지만 미 증시는 개별 기업 요인에 의해 상승 마감

먼저 소프트웨어 업종이 이틀 연속 상승 했는데 이는 MS(+2.56%)가 Teams 등 코로나 확산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Office 365 프로그램을 최대 20% 인상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추정. 이는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라는 점에서 어도비(+1.52%), 서비스나우(+2.32%) 등 여타 소프트웨어 업종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의 상승을 견인.

여기에 전일 메이시스(+3.61%)가 견고한 실적과 배당 지급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자 타겟(+3.26%), 콜스(+2.89%) 등 소매 업체들도 이틀 연속 상승. 더불어 화이자(-0.16%)의 백신 승인이 23일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 마감 후 시간 외로 4% 상승했으며 바이오엔텍(+5.08%)도 6.4%, 모더나(+1.98%)도 1.4% 상승.

이런 가운데 전일 급락했던 알리바바(-1.61%), 진동닷컴(+2.30%), 바이두(+0.23%) 등 중국 기술주들은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과 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규제 강화 소식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보이는 등 반발 매수세 유입된 점도 특징

그렇지만 국제유가는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 우려로 2% 넘게 하락했으며, 곡물과 비철 금속 등 상품선물 시장은 부진. 국채 금리도 상승하기는 했으나 오후 들어 주식시장 강세로 인한 일부 영향을 받았을 뿐 여전히 하방 요인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임

이를 감안 잭슨홀 컨퍼런스 및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금융시장은 당분간 큰 변화를 보이기 보다는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업종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
주요 업종 및
종목 동향

MS로 인한 소프트웨어 업종 및 엔비디아 상승 지속

MS(+2.56%)는 Office 365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개선을 이유로 목표주가 상향 조정되자 상승. 어도비(+1.52%), 서비스나우(+2.32%), 세일즈포스(+1.21%)등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가격 인상 기대로 MS와 더불어 이를 연속 상승. 엔비디아(+5.14%)는 Benchmark Capital이 매수 의견에 230달러 목표 주가를 발표하자 상승. 메이시스(+3.61%)가 전일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발표로 이를 연속 강세를 보이자 타겟(+3.26%), 콜스(+2.89%), 갭(+3.10%)등 소매 업체도 이를 연속 강세. 테슬라(+1.01%)는 AI Day를 통해 로봇 산업 진출 등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상승

반면, Snowflake(-4.57%)는 향후 경제 정상화 될 경우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급락. AMAT(-1.55%)는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. 램리서치(-1.94%)도 동반 하락. 로스스토어(-2.73%)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가이던스 발표로 하락. 특히 비용 증가가 부담을 준 것으로 추정. 디어(-2.10%)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급망에 대한 경고로 하락. 알리바바(-1.61%), 진동닷컴(+2.30%) 등 중국 기술주는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혼조 마감. 화이자(-0.16%)는 장 마감 후 FDA가 백신 승인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간 외로 4% 급등

주요 ETF

ETF 종류	등락률(%)	ETF 종류	등락률(%)
원유시추업체 ETF (XOP)	+0.40	대형 가치주 ETF (IVE)	+0.49
에너지섹터 ETF (OIH)	+0.50	중형 가치주 ETF (IWS)	+0.79
소매업체 ETF (XRT)	+1.64	소형 가치주 ETF (IWN)	+1.66
온라인소매 ETF (IBUY)	+0.81	대형 성장주 ETF (VUG)	+1.04
금융섹터 ETF (XLF)	+0.61	중형 성장주 ETF (IWP)	+1.04
기술섹터 ETF (XLK)	+1.29	소형 성장주 ETF (IWO)	+1.78
소셜미디어 업체 ETF (SOCL)	+1.61	배당주 ETF (DVY)	+0.95
인터넷업체 ETF (FDN)	+1.01	신흥국 고배당 ETF (DEM)	+0.05
리츠업체 ETF (XLRE)	+0.47	신흥국 저변동성 ETF (EEMV)	+0.11
주택건설업체 ETF (XHB)	+1.60	미국 국채 ETF (IEF)	-0.09
바이오섹터 ETF (IBB)	+1.54	하이일드 ETF (JNK)	+0.17
헬스케어 ETF (XLV)	+0.57	물가연동채 ETF (TIP)	-0.31
곡물 ETF (DBA)	-1.00	Long/Short ETF (BTAL)	-0.17
반도체 ETF (SMH)	+0.43	모멘텀 ETF (MTUM)	+0.73

US Sector Index

S&P 500	Close	D-1(%)	D-5(%)	D-20(%)
IT	2,732.56	+1.30	+0.44	+0.71
유틸리티	354.06	+1.22	+1.80	+6.00
통신	276.32	+0.96	-0.39	+0.13
경기소비재	1,412.34	+0.93	-2.24	-4.35
소재	525.54	+0.64	-3.10	+2.43
금융	625.58	+0.62	-2.31	+3.81
헬스케어	1,584.73	+0.51	+1.77	+3.47
부동산	293.68	+0.45	+0.55	+1.53
에너지	343.95	+0.28	-7.33	-6.32
산업재	866.26	+0.24	-2.34	-1.09
필수소비재	753.12	+0.18	+0.43	+2.17
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

한국 주식시장 전망

개별 기업 장세 전망

MSCI 한국 지수 ETF는 0.46% MSCI 신흥 지수 ETF는 0.08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 물은 1,175.91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/원 환율은 5원 하락 출발 예상. Eurex KOSPI200 선물은 0.51% 상승. KOSPI는 0.5%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 연내 시행 시사와 더불어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축소 이슈가 부각되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. 더불어 중국 정부가 기술기업들의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발표한 점도 부담. 이 여파로 중국 증시가 낙폭을 확대하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매물 출회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

그렇지만 미 증시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 반등 기대 심리를 높임. 더 나아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.64%, 러셀2000지수가 1.65% 상승했고, 달러화의 약세, 국채 금리 상승 등 미 증시 후반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된 점도 긍정적인 요인

물론 여전히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, 주 후반에 있을 잭슨홀 컨퍼런스에 대한 우려와 기대 심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. 더불어 잭슨홀 컨퍼런스 및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개별 기업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

주요 경제지표 결과

영국 소매판매 급감

영국 7월 소매판매는 지난달 발표(mom +0.2%)나 예상(mom +0.4%)를 크게 하회한 전월 대비 2.5% 감소. 전년 대비로는 지난달 발표(yoy +9.2%)를 하회한 2.4% 증가에 그침

독일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.9% 상승해 지난달 발표(mom +1.3%)나 예상(mom +0.8%)를 상회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10.4% 상승

”
상품 및
FX시장 동향
”

국제유가, 만기일로 인한 수급 여파로 하락

국제유가는 안전자산 선호심리 여파로 하락 출발했음. 더 나아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이슈가 여전히 작용한 가운데 선물 만기일 여파로 매물 출회가 확산. 이런 가운데 드라이빙 시즌 종료 및 OPEC+의 산유량 감산 축소도 하락 요인 중 하나. 한편, 다음날부터 근원물이 되는 10월물 WTI 또한 2.1% 하락한 62.14달러로 마감

달러화는 장 초반 여전히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였으나, 오후 들어 최근 강세를 뒤로하고 숨 고르기 차원의 매물 출회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. 연화 또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임. 역외 위안화 환율은 약보합을 보인 가운데 브라질 헤알화 등 여타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임

국채금리는 잭슨홀 컨퍼런스 및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소폭 상승 마감. 장 초반 아시아 증시 불안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하락하기도 했으나 오후들어 미 증시 강세가 뚜렷해지자 상승 전환한 점이 특징. 다만, 잭슨홀 컨퍼런스 등을 기다리며 광망세가 짙어 변화폭은 제한

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.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코로나 확산 영향을 받아 혼조세로 마감. 곡물은 연준의 테이퍼링 시사 및 작황 호전 기대 심리가 부각되자 하락. 중국 상품 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.48%, 철근은 2.55% 상승.

주요 상품	종가	D-1(%)	D-5(%)	주요 통화	종가	D-1(%)	D-5(%)
WTI	62.14	-2.14	-8.90	Dollar Index	93.496	-0.08	+1.06
브렌트유	65.18	-1.91	-7.66	EUR/USD	1.1698	+0.20	-0.84
금	1,784.00	+0.05	+0.33	USD/JPY	109.78	+0.04	+0.17
은	23.160	-0.51	-2.82	GBP/USD	1.3623	-0.12	-1.75
알루미늄	2,546.50	+0.04	-2.06	USD/CHF	0.9171	-0.20	+0.16
전기동	9,037.00	+1.61	-5.57	AUD/USD	0.7132	-0.21	-3.23
아연	2,928.50	-0.78	-3.46	USD/CAD	1.2821	-0.05	+2.45
옥수수	537.00	-2.50	-6.28	USD/BRL	5.3802	-0.64	+2.52
밀	728.25	-1.95	-5.94	USD/CNH	6.5002	-0.01	+0.35
대두	1,290.75	-2.22	-5.44	USD/KRW	1,179.60	+0.29	+1.58
커피	181.50	+0.11	-2.29	USD/KRW NDF1M	1,175.91	-0.06	+1.11
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	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
미국	1.255	+1.17	-2.17	스페인	0.210	-0.80	-0.70
한국	1.852	-1.30	-7.30	포르투갈	0.103	-0.50	-0.40
일본	0.011	-0.50	-2.00	그리스	0.555	+0.40	+1.30
독일	-0.495	-0.60	-2.80	이탈리아	0.545	-1.60	0.00
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